

“응원봉·깃발 들고 행진하는 풍경 오월광주 느껴져”

가수 예람, 제1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대상’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수상 민주광장서 노래 불러 의미 상에 맞는 사람 되도록 활동

“제 노래가 5·18민주광장에서 들려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 뜻깊은 자리에서 상까지 받게 돼 더 기쁩니다.”

지난달 5·18 민주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1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에서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로 대상을 받은 가수 예람(26)은 “음악인으로 활동하면서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것이라는 생각에 앞으로 음악을 하는데 있어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이 상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더 열심히 음악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제1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는 오월정신의 가치를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해석하는 창작가요 경연으로 총 154곡이 접수돼

예선을 거쳐 14팀이 본선에서 경연을 펼쳤다.

예람의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는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정의를 향한 투쟁 현장의 풍경을 담은 곡이다. 예람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뒤 이 곡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예람은 “계엄을 겪고 전 국민이 많이 앓았다. 그 상황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도 찾아서 읽었다. 책을 읽으며 책속의 문장이 살아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응원봉을,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풍경을 보며 광주시민들이 80년 5월 당시 총을 들었던 그 모습이 가깝게 느껴졌다. 총칼 대신 연약한 불빛일지라도 꼭 쥐고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노래로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리로 나온 수많은 발걸음이 서로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약자 편에서 서서 발발 뛰가는데 목소리를 보태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가요제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참여할



행각을 하지 못했던 예람은 이번 곡을 만들고 난 뒤 경연 공고를 보고 참여를 결심했다. 특히 5·18민주광장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이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노

래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예람은 “이 노래를 부르며 5·18정신이 80년에 끝난 게 아니라, 역사 속 한 페이지로 끝난 게 아니라 현재 투쟁하고 있는 정의로움과 현장의 발걸음에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다”며 “이런 용기와 의지의 마음이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도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정규앨범 3집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공연 활동도 계속하고 기회가 되면 이번 상을 받은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도 싱글로 녹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싱어송라이터 예람은 2017년부터 음악을 시작, 정규 1집 ‘성’과 2집 ‘세상의 끝에서’를 냈다. 지난해는 유재하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다.

한편, 예람의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 등 제15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본선입상 8곡의 음원은 이달 중 온라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본선 영상도 오월창작가요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광주기독병원 선교회, 소안도서 의료봉사

광주기독병원 선교회는 최근 완도 소안도 소안중앙교회에서 섬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비인후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재활의학과 등 4개 진료과 전문의를 포함한 직원 21명이 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혈액·소변검사, X-ray검사, 영양 수액주사 등을 진행했다. 의료봉사팀은 242명의 진료와 736건의 검사 및 영양수액, 54건의 미용봉사를 펼쳤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 찾아간 소안도였지만 진료 후 주민들에게 받은 감사의 인사말과 환한 미소를 보며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송원대 ‘국제미용경진대회’ 전원 입상 성과

송원대학교 미용예술학과는 최근 온라인으로 치러진 ‘제8회 KO.B.E.A 국제미용경진대회’에서 전원 입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매년 치러지는 국제미용경진대회로, 송원대 미용예술학과 1학년이 출전해 우수한 수상 실적을 남겼다.

헤어커트에서 김지윤, 헤어 블로우드라이에서 정아현, 피부미용 매뉴얼테크닉에서 서다솔, 판타지메이크업에서 신민주 학생이 각각 국회의원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

박장순 미용예술학과장은 “송원대 미용예술학과 1학년생에게 미용 인재의 건설적인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과 자양분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정은성 호남대 교수, 한은 지역본부 자문교수 위촉

호남대학교는 정은성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 자문교수로 위촉됐다고 3일 밝혔다.

한국은행은 지역경제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정책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내 학계 전문가를 자문교수로 위촉

하고 있다. 이번 위촉으로 정 교수는 향후 1년간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동향 분석, 정책자문, 조사연구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 교수는 관광개발, 스마트관광,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다.

교육부 장관·레저·외식 교육과정 심의위원, 광주시 축제육성위원장, 전남도 도시계획위원, 관세청 보세구역 관공인프라 특허 심사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정 교수는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정은성 교수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더할 수 있어 영광이다”며 “관광산업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환경교육주간’ 운영

‘플라스틱 오염 종식’ 주제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오는 5-8일 지역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5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환경교육주간’은 모든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고취하고, 학생들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학교 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퀴즈로 알아보는 생태전환교육 △우리 학교 환경(예발, 쓰레기장 등) 둘러보기 △생태전환교육 기본과정 직무연수 운영 △

AI를 이용한 환경교육주간 노래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퀴즈로 알아보는 생태전환교육’은 시민협치진흥원이 지난해 직접 개발해 각급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재인 ‘지속가능한 지구, 빛고를 생활’, ‘알아두면 쓸모있는 청소년 ESG’ 등을 바탕으로 문항을 구성했다.

각 학교는 시민협치진흥원 누리집에 탑재된 문항들을 활용해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시민협치진흥원은 “2025 환경교육주간”을 앞두고 지난달 22일 본원 들레길 및 반촌제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기후위기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올해 환경교육주간에는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이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학생들이 기후 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대, 남구가족센터서 교구 만들기 봉사

광주대학교는 최근 광주 남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 배경 아동을 위한 교구 만들기 보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한국어교육과, 유아교육과, 언어치료학과를 비롯해 다문화사회전문가 융합전공과 K문화콘텐츠 융합전공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전공 간 협력의 좋은 사례를 남겼다.

재학생들은 손가락 화석 만들기, 범선 만들기, 야광 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활동을 통해 다문화 배경 아동들의 창의력과 흥미를 이끌어내며 보조교사로서 소중한 현장 실무 경험을 쌓았다.

봉사활동은 김은희 한국어교육과 교수와 장미영 남구가족센터장의 기획으로 진행됐다. 최환준 기자

전매게시판

알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제공=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기본반 3개월(토/12회) 성인병 예방·치료, 가족주치의. 문의: 뜰사랑 광주교육원 062-521-3999, 010-4642-4779.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을 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10-8602-0001. △광주시 전남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 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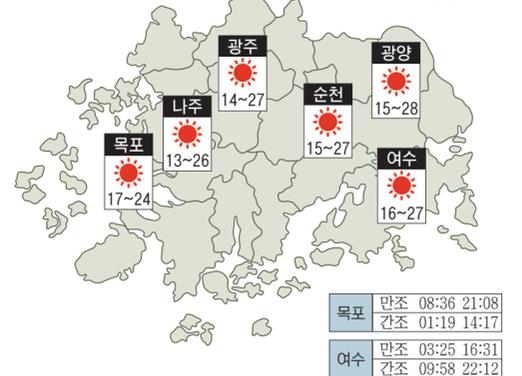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문상담, 노인학대 신고=언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을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주간프로그램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 우울 불안 스트레스 치매 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 자살 우울 문제 등 매주 수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생애리민간단체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오늘의 날씨

일출 05:19 월출 13:19
일몰 19:43 월몰 01:17



장성	12~26	영암	14~26	완도	16~27
담양	12~27	진도	14~24	강진	14~27
화순	12~27	신안	17~24	장흥	14~27
영광	15~25	흑산도	16~22	해남	14~26
함평	14~25	구례	12~27	고흥	13~28
무안	14~24	곡성	11~27	보성	13~26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